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 학위논문

중학교 음악교육이
청소년기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여 주 미

중학교 음악교육이
청소년기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usic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Adolescence

2010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여 주 미

중학교 음악교육이
청소년기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 교수 김혜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여주미

여주미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3
1. 음악교육의 개념	3
2. 음악교육의 목적	5
제3장 청소년기의 특징	14
1. 청소년기의 정의	14
2.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	15
제4장 청소년기 인격형성과 음악교육의 관계	24
1. 발달심리와 청소년 음악교육의 상호관계	24
2. 청소년에게 있어서 음악의 의미	29
3. 음악 교육을 통한 인격성장 및 음악성의 성장	37
제5장 결론	42
참고문헌	44

표 목차

<표 1>인지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12
<표 2>정의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13
<표 3>심동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13
<표 4>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 능력의 차이	20

ABSTRACT

The Effects of Music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on the Formation of Character in Adolescence

Ju mi, Yeo

Advisor : Prof. Hye kyong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music education is related to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Teenagers a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ir emotion and environment. A variety of age group exist our society, and it is one of the responsibility of our society that we should educate adolescent who is at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their life to be a member of the desirable society.

Even though we know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n school as a method of making social human beings, college-admission-centered education has driven the education system into focusing on a few specific subjects for entering the university. As a result, music education has been undervalued.

In this reason, I would like to make a study about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 building and music education.

In this thesis,

First, it is presented how music education can have effect on formation of personality in terms of psychology and social action.

Secondly, it shows development of personality and musicality through the music education especially in three aspects.

I think, therefore, secondary music teachers have to have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lment of raising the young people as sound citizens and developing emotions of the teenagers. In addition, music education should develop their musical potential energy and creativity, helping them express their thought and feelings. This study analyzed and researched the existing theories and documents and examined the meaning, purpose and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우리는 음악을 삶의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에게 구별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 정보들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사회적인 한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청소년기에 무분별하게 수용되어지는 음악들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인격을 해롭게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음악을 배우는 행위와 음악을 가르치는 행위는 한 개인의 음악적 지식과 능력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문화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고 이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인간의 숭고한 원초적 본능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자신 이외의 어떤 인격체를 만나고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느껴지는 보람과 한 인격체를 형성시켜 가는데 희생한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보게 되면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교육위주로 수업을 진행시켜감으로써 교육의 참된 의미를 상실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인적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습득의 편식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감성과 내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음악을 배움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의미 있는 경험을 체험케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한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피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가치관, 정서 등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음악교육이 담당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인간 존재의 의지 내지는 그 성격과 행위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은 인간의 참다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이에 본 연구는 음악과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켜 음악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 연구된 논문과 음악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 및 참고하여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해 조사하여 음악의 당위성에 대해 논했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시기에 이뤄지는 변화들과 음악교육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다. 특히 중학교 음악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가 중심을 두고 있는 중등음악교육에 관련지어서 이해, 표현, 감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Grout, D. J. “서양음악사”, 수문당, 1985, p.8

제2장 음악교육의 이론적 고찰

1. 음악교육의 개념

가) 음악의 정의(定義)

음악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예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음악의 본성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벌(cymbals)의 부서지는 소리나 합성기(synthesizer)에서 나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 부르지 않고 음악이라 말한다. 하지만 다른 물체에서 울리는 큰 소리는 소음이라 간주하는데 그 차이는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소리가 미리 계획된 대로 연결되어 들리면 음악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지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중요성이다. 실상 음악이라는 것은 흔히 “조직화된 소리(organized sound)”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행위 속에 존재한다는 엘리엇²⁾의 철학은 그의 음악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음악의 개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즉, 음악은 ‘음악작품’이 아니라 ‘음악 행위’라는 것이며, 그래서 음악의 궁극적인 실체는 음악작품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musicing or music-making)’라는 것이다. 인간이 소리를 재료로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물(object)이 아니라 음악하는 행위(action)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엘리엇은 보고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예를 산조의 명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무엇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반인가? 아니면 그들의 음악을 누군가 채보해 놓은 ‘산조악보’인가? 그 어느 것도 그 명인의 음악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심지어 그가 어느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했던 것을 비디오로 녹화해 놓았다고 해도, 그 비디오가 그의 음악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

2) 엘리엇(Elliott, D.J.)은 1995년에 [Music Matters]라는 책을 통해서 음악교육철학분야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한 사람이다. 그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음악교육철학분야를 주도하던 ‘심미적 음악교육론’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철학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음악은 그 명인의 속에 살아 있는 것이며, 그가 어디서든 연주할 때마다 그의 음악의 일부가 우리에게 청각적인 형태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음악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엘리엇은 인간의 음악하는 행위의 개념을 빼고서는 음악을 행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음악은 인간의 음악하는 행위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음악의 가치(價値)

음악과 그 밖의 예술이 인간에게 왜 중요한지에 관한 질문은 대체로 음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리 흥미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음악이란 정서적인 생활을 위한 음의 유사품”³⁾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실상, 이 문제가 대부분의 음악 교사들에게는 별로 흥미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음악교사라면 여기에 흥미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음악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하여 상당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 사람들에게 왜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상이한 이론이 있으나 이 이론들은 어떤 확고한 사실이기보다는 거의가 지적인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 미국의 철학과 미학의 저자인 존 듀이(John Dewey)와 수잔 랭거(Susanne K. Langer)에 의하여 아마도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한 가지 관점은,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포괄적으로 인생에 관련된 느낌을 재 경험하고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주관적인 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철학자 아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같은 사람은 음악이란 “변형된 자연”⁴⁾이 이 세상을 초월하고 최종적인 의지인 신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관점이 있다.

이 이론들이 이렇게 심오한 만큼 어떠한 설명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데 한 가지 설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예술이 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예술의 가치론에 대한) 미학자와 철학자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술이 인간 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공헌

3) Langer, Susanne K. "Feeling and Form", New York: Charles Scribner's, 1953, p.27

4) Schopenhauer, A. "The World as Will and Idea, 4th edition, vol.1, trans. R.B Haldane and J. Kemp, (London : Kegan, Paul, Trench, Trubner), 1896, p.333

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동의하는 폭이 넓다.

본질적으로 예술은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중요한 사고의 차이를 나타낸다. 동물들은 어떤 점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그들 존재의 목적이다. 인간은 생활을 한다. 인간은 인생을 흥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또 만족하도록 노력한다. 인간은 단지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생존하기 위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음악, 미술, 무용, 이 모든 것은 인생을 풍부하게 하며,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오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람들은 구비치는 파도, 석양의 하늘빛, 또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인간은 또한 자신을 심사숙고하게 만들며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목적물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다 놓을 전등의 받침으로 커다란 마분지 상자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보다는 약간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곁들여진 나무 테이블에다가 전등을 갖기를 사실 더 바란다. 이렇듯 인간의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욕구를 떠난 것에 도달하려는 충동은 선의의 허영만은 아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기 위한 본질적인 특성이다. 5)

2. 음악교육의 목표

가) 음악교육의 당위성

학교에 음악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음악교육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다. 학교에서 음악교육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음악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분야가 되지만, 만일 그 당위성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 음악교육은 학교 안에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이론적 논점들을 개인적, 교육적,

5) Hoffer, Charles R. "음악교육론(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p.52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인간 본성으로서의 음악

음악적 본성은 인간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예술적 본성은 인류사의 초기부터 드러났다. 초기의 인류 조상들은 그들이 비록 동굴에 거했을지라도 그 동굴에 벽화를 그렸고, 그들이 돌칼을 사용했던 시절에도 그 손잡이에 문양을 그려 넣는 일을 중요시 하였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종교적 의식에서도 춤과 노래와 기악은 필수적인 요소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음악적 본성과 능력은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육에서도 필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간의 지능 가운데 음악적 지능이 필수적인 분야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영역을 8가지로 나누고 그 중의 하나로 ‘음악적 지능 (musical intelligence)’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가드너는 사람에 따라 지능의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영역의 지능을 다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음악적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이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악적 지능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아 완성’ 또는 ‘전인적 성장’의 개념이 중요시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자아완성이란 곧 학생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바의 잠재적인 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전인적 성장이라는 개념도 역시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적절하게 성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자아 완성과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음악적 성장은 필수적인 것이며, 학교교육에서 음악교육은 기본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2) 창의성 발달에 기여

음악교육은 창의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모든 음악은 본래 창의적이며, 특히 걸작품들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창의적 산물이다. 아동들이 좋은 음악작품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창의적 잠재력은 눈을 뜨고,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창의성은 세련되어진다. 현대 교육에서 창의성 계발은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탐구되고 있는 바, 음악교육은 마땅히 그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음악작품을 듣고 분석하고 연주해 보는 활동보다 더 창의적인 활동을 찾기는 힘들며, 다양한 소리로 학생들이 자기들의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창작활동만큼 더 창조적인 학습은 없을 것이다.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 질(aesthetic quality)과 창의적 속성을 지닌 음악 작품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이 발달되도록 돕는 것은 비단 음악교육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도 참여해야 할 일이다. 아동들의 창의성은 단지 '창의성을 잘 교육하자'라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 발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매체가 그들의 앞에 놓여 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수준에서 언제든지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창의성 교육이 가능해진다. 아동들이 악기를 배우고 나면 곧바로 그들의 느낌을 그 악기로 나타내고 싶어 한다. 아동들이 악기를 노래를 배우고 나면 가사를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노래하고 싶어 한다. 아동들은 음악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음악 속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음악 공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음악이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분야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놀이를 하

면서, 일상적인 의식(결혼식, 장례식, 축하행사 등)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활용하거나 즐기게 된다.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연극, 무용 등의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이 인정되고 있다. 음악 이외의 많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음악의 활용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의 음악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시켜 주며,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음악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음악교육을 음악적 재능이 있는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현대에 이룰수록 개인의 삶에서 '여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인간의 여가생활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하여 음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음악을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기능과 습관을 익힘으로써, 학생의 시절뿐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에도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좋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4) 문화유산으로서의 음악의 가치

음악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류사의 태고 적에도 음악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역사에 음악적 유산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 문화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맥락을 바르게 이해하여 그 문화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까지 쌓여진 음악문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는 음악 문화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훌륭한 음악유산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곧 음악교육인 것이다.

음악유산의 계승은 ‘음악가’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음악을 인정하고 감상하고 ‘의미 있는 문화’로 정착시켜 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 음악문화의 역사는 ‘음악가들의 역사’가 아니라 ‘음악사회’의 역사이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음악을 인정하고, 들어주고, 자기 삶 속에 그 음악을 끌어들이던 일반인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 음악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역사가 곧 참된 음악의 역사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계승된 좋은 음악적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미래의 ‘음악적인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⁶⁾

(5)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의 당위성

전인적 인간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심미 교육의 일부로서 음악교육이 지니는 독자적 역할은 인간과 삶의 본질, 음악의 본질, 심미적 경험의 성격, 그리고 음악 체험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탐색한 결과로 제시될 때 그 정당성이 옹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교육이 심미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음악과의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⁷⁾

첫째, 개인의 음악적 잠재력도 신체적, 언어적 능력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 하나이므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음악의 체험은 음을 감지하고 음악적으로 사고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감상, 연주, 창작 등의 행위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점차 수준을 높여간다.

셋째, 음악은 개인의 창조성 구현에 적절하므로 자아 창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6)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9, pp.45-48

7)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근접”, 세광음악출판사, 1990, pp.109-110

넷째, 음악은 자기표현의 길이므로 음악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기 방식으로 나타내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야한다.

다섯째, 음악활동은 최상의 내적 만족을 얻는 경험이므로 수준 높은 예술 음악과의 만남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음악을 민족 문화 측면으로 인식하여 ‘오늘날의 우리의 음악’을 주 교재로 삼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나라, 세대 간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 음악교육의 목적

음악교육은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음악의 심미적 체험, 음악적 능력의 향상, 음악적 심성의 계발 혹은 음악을 심미적으로 체험하는 것, 음악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 음악적 심성을 계발하는 것은 음악교육 행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음악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 계발
- (2) 감정과 생각의 표현
- (3) 삶의 질을 높임
- (4) 전인적인 인간의 육성
- (5) 음악의 이해와 향유

우리나라 일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1970년대 초까지 주로 사회적인 목적에 의하여 당위성이 옹호되어 왔기 때문에 음악교육의 가치도 음악의 본질과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관련정보보다는 음악과 삶의 사회적 요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와 같이 음악 외적 가치에 일관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일기 시작하였다.

- (1) 음악활동이 인격형성이나 건전한 시민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수적인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음악 활동의 본질적 가치가 외면되는 경우에도 음악교과의 정당성이 옹호될 수 있는 것인지?
- (2) 가장 오랫동안 훌륭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3) 음악과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적 교과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음악교사들은 만족할 수 있는가?
- (4)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특별한 기대치의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할 경우 그 프로그램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오늘날의 음악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교육 활동이 일종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추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음악 영역이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교과로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고, 이로부터 음악교사들의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8)

다) 음악교육의 구성 요소

블룸(B.S. Bloom, 1913~)을 비롯한 교육학자들은 음악교육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는데, 9) 교사들은 음악학습의 목적이 각 영역별 분류학의 상위 단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 인지적 영역

8)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2005, p.49

9) 상계서

인지적 영역은 인지적 정보를 과정화할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신적 기술의 위계를 제시한 것이며, 음악교육 측면에서 볼 때 가락, 리듬, 화성, 형식 등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며, 그 위계는 아래와 같다.

<표 1> 인지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지식 자료회상, 단순기억	이해 기억에 의미부여	적용(응용) 새로운 상황, 일반화, 추상화	분석 형식 및 구조에 초점	종합(합성) 부분의 결합, 전체화	평가 이전 단계를 포괄, 판단력
----------------------------	--------------------------	--------------------------------------	-----------------------------	---------------------------------	--------------------------------

(2) 정의적 영역

정의적 또는 감성적 영역은 정서적 느낌의 상태나 학습에 대한 수용도로서, 음악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을 수립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이 영역은 가치 판단을 형성하거나 행위를 결정짓는 태도관, 신조, 원칙, 제재에 대한 개인의 수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내재화에 대한 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머물러 있는 미약한 관여행동이지만 중간단계는 안정되어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좀 더 지속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표 2> 정의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감수(수용) 참여, 관심 끌기	반응 자극의 인식, 참여하는 즐거움	가치화(응용) 가치수용 및 관여, 태도관, 감상관	조직화(구성/가치관) 가치관의 결합, 체제의 형성, 고정관념화, 가치의 일관성
-------------------------------	----------------------------------	--	--

‘조직화’ 단계는 ‘구성’과 ‘가치관’으로 구분된다. 가치관들이 내재적으로 연관되고 가치 체계의 조직화가 시작되는 ‘구성’단계에서는 여러 가치관들의 갈등이 해결되어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낳는다. 가치 체계에 일관성을 보이는 ‘가치’ 또는 ‘가치관념’은 구성 단계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인생철학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확고부동하게 되는 단계이다.

(3) 심동적 영역

심동적 영역은 주로 음악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데, 테크닉에 대한 훈련이나 가창, 감상활동이 포함된다.

<표 3> 심동적 영역의 단계적 특성

지각	준비	지시된 반응	기교	고도의 반응	적응/창작
감각적 자극, 단서선택, 해석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감정적	모방, 시행착오	기계적 반응	불확정성 해결, 자동적 연주	연주의 변화, 새기술 개발

‘지각’의 단계에서는 대상 및 특질을 인식하고 감각 기관에 의해 연관 관계를 깨닫게 되며, ‘준비’를 거쳐 ‘지시된, 또는 안내된 반응’ 단계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 분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기교’에서는 학습된 반응이 기계적으로 된다. ‘고도의 반응’은 어려운 기술의 수행인데, 복잡한 행동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훌륭하게 조절된 운동기술로 연주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적응’ 단계는 더욱 적절하게 되도록 연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창작’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10)

10) 상계서, p.55

제3장 청소년기의 특징

1. 청소년기의 정의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adolescence'는 원래 라틴어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다'라는 'adolescere'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성장의 시기로 아동의 미성숙에서 성인의 성숙으로 옮겨가는 시기를 말한다. 즉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가 시작된 개인은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생물학적인 변화로 인해 2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아동에 비해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여러 영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관심 영역과 시각에 따라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규정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를 사춘기의 시작에서부터 성적인 생식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로 규정하지만,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에서부터 자아정체감의 형성할 때까지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학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학교에 몇 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검사나 경찰은 법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11) 그렇다면 만약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성인과 같이 성숙되어 있다면 이 아이를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청소년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단정적으로 아동이다 또는 청소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동이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성인일 수도 있다.

비록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

11)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늘날 청소년기를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기 동안 많은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청소년기를 초기(11~14세), 중기(15~18세), 후기 청소년기(19~21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 교육 제도에서 학년구분과 일치한다. 즉 초기 청소년기는 중학교, 중기 청소년기는 고등학교, 후기 청소년기는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를 말한다고 하겠다.

2.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

인간 발달단계의 하나로서 청소년기는 과연 다른 시기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Hill(1983)은 청소년기에는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변화 즉, ①생물학적 변화로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②인지적 변화로서 아동기보다 진보된 사고능력이 나타나며, ③사회적 변화로서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와 확연히 구분되어진다고 주장한다.¹²⁾ 이 세 가지 변화는 모든 문화권의 모든 청소년에게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변화’라고 한다.

가) 생물학적 변화

청소년기 생물학적 변화(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체적 외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 아이들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며 남녀 청소년 모두 급속도로 신장이 커지며, 성적 기관의 발달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사춘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자아상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즉, 체형과

12) 김태런, 장휘숙, “발달심리학”, 전영사, 1987

외모 등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를 과거와는 다르다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자기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뿌듯한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또한 갖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생활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내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아버지의 애정 어린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어머니에 대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성적 호르몬의 활성화로 인해 성적 충동과 관심이 증가하여 친구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나) 인지적 변화

인지(cognition)란, 간단하게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인지적 과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 중 두 번째 요소인 사고능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다 향상된 사고능력의 출현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아동에 비해 가상의 상황(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우정, 민주주의, 도덕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1) 타인에 대한 판단

청소년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우선 청소년들은 아동에 비해 자신이나 타인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한다. 즉 아동들은 타인을 묘사할 때, “내 친구인 철수는 남자다”와 같이 성별이나 연령 등과 같은 포괄적인 특성으로 묘사하지만, 청소년들은 “내 친구인 철수는 대인관계가 너무 소극적이고 성격이 여자 같다”와

같이 개인적인 특성이나 흥미 등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을 묘사한다. 두 번째 특징은 아동에 비해 덜 자기중심적이다. 즉 청소년들은 자기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로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을 평가할 때 외모나 재산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태도와 동기 같은 추상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동에 비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이나 태도, 동기 등에 대해 추론적 사고를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아동보다 체계적인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 평가할 때, “숙희는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자기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는다” 또는 “철수는 여자 친구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남자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와 같이 타인의 성격 특성과 상황적인 요인을 서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2)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Selman(1980)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 머물러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견해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견해 역시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¹³⁾ 이처럼 청소년들은 타인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Selman에 의하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몇 가지 단계를 걸쳐 발달한다고 한다. 우선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들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된다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 단계인 초기 청소년기에서는 어떤 현상을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인 우석이는

13) 신현기 외. “학습장애 아동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1995

몇 일 전에 같은 반 친구 선호와 심하게 다투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또 다른 친구인 혜현이가 두 친구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해 보자. 혜현이가는 객관적인 관심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킨 우석이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과하는 우석이에게 심하게 화를 낸 선호의 행동이 우석이를 자극시켰으며 결국 두 친구는 심한 언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세 번째 단계인 청소년기가 되면, 타인의 입장은 매우 복잡하며, 종종 무의식이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예를 들어,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위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선생님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청소년의 성격과 선생님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기대되는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 등도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청소년은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견해와 다른 타인에게 자신의 견해를 아동에 비해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오디오를 사달라고 요구할 때, 아동들은 “내 친구들은 모두 자기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오디오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청소년들은 “내 방에 오디오를 설치하면, 음악소리로 인해 아버지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부모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유형의 주장 중 청소년의 주장이 아동의 설득전략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ilverberg(1986)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수록 가족 간의 대화는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14)

(3) 도덕, 사회적 관습과 규범 등에 대한 생각

청소년기가 되면 아동에 비해 보다 상위의 도덕적인 추론을 하게 된다. 아동들의 도덕 판단기준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법칙이나 규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도덕 기준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이

14) 송길연 외. “발달심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2005

러한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는 도덕 기준은 인간의 평등, 정의, 공평 등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개인의 이해 역시 도덕 원리의 이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한다. 예를 들어, 7세 정도의 아동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습은 부모나 선생님 같은 권위자가 요구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규범을 단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관습을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관습이나 규범에 맞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에 비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들이 극장의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제일 먼저 입장권을 사게 되어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표 4>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 능력의 차이

영역	청소년기 이전의 사고	청소년의 사고
타인에 대한 인상 또는 지각	전반적, 자기중심적, 구체적, 조직적이지 못함	구체적, 객관적, 추상적, 조직적
대인 관계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개인의 관점이 또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함	제 삼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음.
도덕 추론	도덕은 권위자에 의해 구체적인 법칙에 근거	도덕은 사람들 간의 합의에 근거하며, 추상적인 원리에 기초함.
사회적 관습	관습은 법칙이나 권위자의 지시에 근거	관습은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근거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 이전의 사고와 청소년기의 사고는 각각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차이로서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으로 성장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회적 변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성인과 아동의 역할이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는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즉 일정한 연령이 되기 전에는 자동차 운전, 결혼, 투표권 등을 가질 수 없도록 사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나 책임, 그리고 의무 즉, 청소년기에 사회적 변화가 공식적인 행사나 절차를 통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문화권도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에서 청소년을 과거와는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다른 가족 관계, 친구관계 등을 형성하게 된다.

(1) 사회적 기대의 공통적 특징

문화에 따라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첫째,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어떤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는 후기 아동기가 되면 낮에는 부모들과 같이 지내도 되지만 밤이 되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생리가 시작된 여자 청소년들은 일정기간동안 부모와 부족이 지정한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한다. 또한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특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정을 떠나 오랜 기간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와의 분리된 활동이나 생활은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캠

프를 가든지 객지에서 공부하기위해 하숙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청소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아동과는 달리 성별에 대한 사회적 또는 신체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기대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가 강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성에 맞는 의상을 입기 요구하고 있으며, 남자는 더욱 남성답고 여자는 더욱 여성스럽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어떤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는 사춘기가 시작되면 비록 오누이 사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나 상호 작용을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남녀의 구별이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중·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남녀공학이 아닌 동성들끼리만 한 반에서 수업을 하거나,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남자는 기술, 여자는 가정 등)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다소 약해졌지만 아직까지 옷 입는 스타일, 말이나 행동, 집안 일 등에 있어 남녀의 구별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의 문화, 역사를 전수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와 기술을 가르친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그 부족이나 사회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고 사춘기가 되면 성에 관한 정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르쳤다. 오늘날에도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위한 준비의 시기로 이들이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훈련시키고,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2) 사회적 기대의 차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는 과거나 현대, 문화권의 차이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차이가 있고, 이들이 아동과는 다른 행동이나 대우를 받는 시기도 다르다 따라서 문화 비교적 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청소년기의 특징과 발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 과정의 차이는 크게 두 가

지 차원 즉 사회적 변화과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는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연속적인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역할 변화의 명확성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는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변화를 공식적인 의례나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한다. 전통적인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공식적인 의례나 행사는 남자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하는 시기나 지역사회에서 정한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며, 여자의 경우는 대개 초경이 시작되는 시기에 행해진다. 이러한 행사를 거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아동 대우를 받지 않고 성인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는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거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형태의 옷을 입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표시(예를 들어, 문신 등)등을 통해 이들을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혼란이 현대사회에 비해 적다.

◇사회적 역할변화의 연속성

문화권이나 역사적 시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할변화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서 구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역할 변화가 얼마나 연속적인가 즉,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또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지위와 역할을 조금씩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청소년들이 성인의 역할을 순조롭게 획득하지 않고 갑자기 성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비연속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농사를 주로 짓는 문화권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어린 시절에 획득한 기술이나 역할을 별다른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직장 경험이나 사회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역할변화가 비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비연속성이 현대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장애로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비연속성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15)

15) 임영식, 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2000, p.130

제4장 청소년기 인격형성과 음악교육의 관계

1. 발달심리와 청소년 음악교육의 상호관계

학습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내는데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최근 음악 심리학의 연구가 실험적인 경향이 강하여 신경과학 측면의 음악 치료학 분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다.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련되는 이론들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고자 한다.

가) 인지 발달과 음악적 성장

인간의 발달 심리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학습 자료와 지도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한다. 피아제(J. Piaget, 1896~1980) 16) 는 인간의 인지(認知)발달을 동화(同和)와 조절(調節)에 의한 도식(圖式, Schemas)의 변화로 설명하였고,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평형(平衡)이라고 하였다. 17)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음악교육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온 음악적 성장의 특징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1) 감각 동작기 (Sensory-motor Period)

출생에서 약 24개월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며 이 시기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각기관

16)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한 견해는 그의 생의 초기에 관심의 대상이었던 생물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인지발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체구조가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듯이 사고의 구조도 외부세계에 맞도록 점차 발달해 간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들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진 사물이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7세 미만의 아동들은 우유의 양이 용기의 모양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은 일상세계에 적응해가면서 이러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부딪치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환경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발전시켜 나간다.

17)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술, 2005, p.39

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처음에는 자신과 환경의 대상에 대한 의식이 없지만 조금 성장하게 되면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물체를 잡고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며 소리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최초의 반사행동을 바탕으로 도식을 형성하며, 형성된 도식에 의해서 환경을 조작하고 보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감각작용이 감각 운동기의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체적 기능이라는 사실은 음악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운동신경, 근(筋)감각 등과 함께 아기의 청각도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각이란, 여러 가지 음(音)현상의 특징을 분별하는 청각적 내면작용을 뜻한다.

영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흉내 내어 보고,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2) 전(前)조작기 (Pre-operational Period)

생후 24개월부터 약 7세까지의 인지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 전 조작기는 조작기로 발달해 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로서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개념적 조작능력은 발달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아직 개념적인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지만,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해진다.

전 조작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언어적인 성장행동의 출현이다. 정신세계의 급진적인 확장에 의해 논리성이 결여되며 모방, 상상, 상징놀이 그리고 상징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행동을 표상한다. 전 조작기 아동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그들 자신의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단히 자기중심적이다. 전 조작기 동안에는 인지 발달과 함께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도 급속히 성장한다. 교사와 부모가 이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음악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은 소리의 셈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율동 및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려 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 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음악적 능

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3)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

구체적 조작기는 약 7세에 시작하여 11~12세에 끝이 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서 현저한 성숙을 보인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구체적 사물과 관련되어있는 문제해결에서는 대단히 유능하나, 순수하게 철학적 혹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가설생성에는 아직 미숙하다.

구체적 조작기 동안에 어린이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 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적 현상이 보존이 가능하게 되며, 음악적 개념도 현저하게 계발된다.

구체적 조작기의 초기 단계인 7세기경의 발달특징을 보면, 음악의 셈여림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리듬에 흥미를 가지며,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떤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이 지니는 독특한 흐름결의 형태를 소리로 나타내기, 청음 놀이하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단순 음악 듣기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음악 요소의 보존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각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각기능이 음 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또 수의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에 음계 및 음표의 수리적 조직에 적응할 수 있고, 손의 근 감각과 손놀림이 발달하여 무리 없이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기호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린아이의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음악놀이, 악보 읽기와 쓰기, 악기 배우기, 여러 종류의 음악 듣기 등의 음악체험이 적절하고 중요하다.

10~11세 경이 되면 어린이들은 집단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중창 및 중주활동,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4)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

11세부터 15세까지 지속되는 발달 단계를 Piaget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명명하였다.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순전히 상징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조직하여 과학적으로 추리하며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인지적 구조는 이 시기에 거의 완전한 성숙의 수준에 이르고, 사고의 논리적 조작이 자유로워져서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형식적 조작능력은 조합적 사고인데 그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다. 18)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지적, 감정적 측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가지는 유기체적 존재로 성숙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음악적 특수성과 지적수준 등이 음악지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된다. 청소년들은 개인별로 음악적 욕구와 필요를 지니며, 때로는 음악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음악으로부터 감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적인 충족감도 동시에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음향과 음악적 논리의 관련성, 음향과 추상성, 음악의 창조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

나) 청소년들의 예술에 대한 태도 변화

아동기는 예술의 미를 어느 정도는 감득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동하고 무아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기는 예술에 대한 깊은 감동과 충족을 경험 할 수가 있다. 또한 청년기는 인지력의 발달로 인하여 정서를 격화시켜

18) 김태린, 장휘숙, “발달심리학”, 전영사, 1987, pp.15-18

19)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 출판사, 1990, p.77-80

주는 대상 특히, 정열적인 대상 속에 몰입해 보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연극에 있어서 사건의 단순한 표면적인 진행이나 주제에 의해서보다는 인간적 체험이나 의지, 투쟁, 정서적 격동을 불러 일으켜 주는 주제에 의하여 더욱 강한 미적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은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분야에 있어서 강한 미적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미적 의식 발달은 청년 전기(중학생), 청년 중기(고등학교), 청년 후기(대학생)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미적의식의 발달이라기 보다는 예술에 대한 태도 변화로 불리어야 할 것이다. 20)

(1) 청년 전기의 예술에 대한 태도변화

청년 전기는 충동적이면서도 반항적인 시기로서 예술에 대한 흥미는 그다지 강렬하지 않지만 다소 감상적이며 관념적인 태도로 갖는 시기이다. 특히 남성에게는 활동적이고 흥분적인 경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며 여성에게는 감상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 청년 중기의 예술에 대한 태도 변화

주관적인 반항과 비판력이 강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기성 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기성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려는 의욕을 가진다. 이들은 비판에는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속에는 창조성이 싹트고 있으며 그리고 예술에 대한 흥미는 매우 강해진다. 이 시기의 예술에 대한 태도는 관념적인 경향에서 현실적인 경향으로 변해간다. 또한 미적 감정이 발달되어 비약적인 예술 체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다.

20) 장병립, “청년 심리학”, 법문사, 1982, pp.218-219

(3) 청년 후기의 예술에 대한 태도 변화

청년 중기에 비하여 보다 많은 객관적인 반항과 비판을 가하는 시기로서 현실과의 타협이 가능하고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주관과 객관, 이상과 현실에 대한 조화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창조와 감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예술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중기 때에 청년들은 가치 있는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가치를 특정한 인물과는 관련시키지 않고 가치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전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된 예술을 감상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시기 구분에 의한 예술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예술의 가치관의 변화인 동시에 그들의 인생관이나 사회관이 점점 본질적인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의한 청소년들의 예술 체험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건전하게 지도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에게 있어서 음악의 의미

청소년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현실 속의 자아와 이상 속의 자아와의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또 주위에 대하여 공격적이 되거나 또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이 된다. 이러한 간격은 음악 속에서 명확하게 파악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음악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대중음악 속에서 이상상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21) 인간 심층에는 본래 갈망했던 것,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 고양된 가슴 등 무엇인가 맺혀 있는 것이 있기 때

21) 장병림, “청년 심리학”, 법문사, 1982, p.218

문에 이런 감정 상태를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풀어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

청소년기는 여러 관점에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성숙한 단계이며 체력은 절정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젊은 체력은 막대한 남용과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활발하고 발랄한 시기의 이들은 이처럼 왕성한 열기를 어디엔가 발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중가요와 팝송을 통하여 고망이 터져라 질러대는 통기타의 포르티시모 속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힘찬 소리를 대신 질러 준다는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지능의 급격한 성장으로 어떠한 문제해결에 추리를 할 줄 알게 되고 주위의 사물에 대해서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며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형식적 조작기가 도래하는 시기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 Sullivan²²⁾은 청소년기를 인간관계 형성의 최초의 시기로 보며 이 시기의 정서의 빼뺏어진 발달은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성격의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²³⁾ 따라서 정서적 도취의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의 역할은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듯 음악의 감화력은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침윤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 평가의 능력이 확정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정서 생활에 안정을 주고 또한 조화롭게 인격을 형성해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가)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교육

듀이는 “예술적 가치란 인간 생활에 대한 가치이며, 예술은 인간의 사상을 키워준다.”라고 하였다. 이는 예술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며, 또 학교 교육은 감수성과 정서면의 훈련을 의미하는 예술적, 심미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예술 교육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의 통합된 결합이 가능할 것을 기대

22) Anne sullivan (1866-1936) 미국의 교육가로 헬렌 켈러의 선생

23) 김태런, 장휘숙, “발달심리학”, 전영사, 1987

하고 있다. 24)

그는 또한 “예술의 순수성이나 예술 그 자체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예술이라기보다는 수동적 향락과 오락에 불과하며 그것이 일반 유희와 다른 점은 주어진 세련미와 교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며 예술적, 심미적 가치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성과 생활 가치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며, 유용하다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했다. 25)

그는 또 예술을 인간사이의 최고의 전달 수단으로 보았다. 예술은 표현적이고, 경험을 유발하는 것에 존재하므로 전달의 기능을 가지며, 이 전달은 말이나 설명으로 하는 지적인 전달과는 달리, 같이 경험을 나누어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인간사이의 공통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예술은 가장 완전하고 간섭없는 전달이라 하였다.

머셀(James Mursell)은 음악적 품성을 갖춘 음악교사의 요건을 훌륭한 계획과 지도 방법 및 평가에 있어서 완숙한 능력이 필요하고 항상 자신의 음악적 결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좋은 음악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또한 연주자로서 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음악 교육의 실제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지식과 관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음악적으로 공헌하는 자라고 하였다. 그는 또 인간으로서 성장하지 않더라도 음악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라 하여 음악교육의 인간형성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삶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음악이 인간생활에 유익한 것일 때 교육에 채택할 가치가 있으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교육으로서의 음악은 단지 정서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성 향상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의 근본적인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듀이(John Dewey)는 그의 경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험인 미적 경험을 유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과학과 예술, 그 어느 편에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자신의 예술의 편에 서겠다고 하였다. 그는 예술의 가

24) 박봉목, “Dewey의 예술론’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 17권 제 1호, 1979, p.33

25) 박봉목, 상계서, p.31

치 형성적인 힘은 일반 교육의 교수보다도 더 강하고, 도덕은 기성 질서나 습관의 유지만을 위주로 하지만, 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하여 선을 전달하고 욕망과 목적을 재조정시키므로 “예술은 도덕보다도 더 도덕적이다”라고 하였다. 26)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적 감상능력을 향상시켜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에게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이해시키고 보다 높은 예술음악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로 인하여 기초적인 교양을 갖출 수 있게 된다.

(2)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발달시켜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게 한다. 즉 자신만의 개성적인 음악의 표현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과 자신을 일치시켜 그 작품 속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3)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서 음악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체득시켜서 이성과 함께 감정을 표현하는 조화로운 인간이 되게 한다. 음악에 있어서 연주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음악의 시적 가치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음악교육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4) 음악을 생활화하는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음악성을 통한 이해력을 갖춘 인간이 되게 한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므로 내면적으로 감수적인 인간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음악이 그들의 삶속에 큰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한 균형 잡힌 인간이 형성될 수 있다.

나) 중학교 음악과 교육내용의 의미

(1) 이해의 측면

26) 한명희, “듀이의 미학이론과 교육이론”, 삼일당, 1982, p.172

중학교 음악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대체로 이해와 표현, 감상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억지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학습의 이해는 교과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학교 음악과 수업은 이 시기가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반항적인 때이므로 특히, 제재곡의 선택이나 수업의 진행방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순화된 감정과 막연한 미래에의 동경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음악 수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재내용을 떠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주어진 환경과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알맞은 방식을 교사는 부단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음악과 학습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학습비중은 점차 높아가는 추세이므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리듬에 있어서 서양음악의 6박자 개념과 국악에서의 6박자 개념 등이 그것이다. 굿거리 장단에서처럼 6박자로 표기했을 경우의 느낌과 12박으로 표기했을 경우 그 느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양음악에서의 6박자 제재곡과 굿거리, 혹은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적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가락에 관한 학습에서는 여러 가지 음계와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서양음계의 특징과 각 조표의 위치 및 음악적 느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국악의 다양한 시김새들에 대한 멋과 창법, 기보법 등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가 2학년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음정은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체계가 된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서양음악에서의 음정개념을 발전시킨 화성 및 그 연결방법, 대위적인 기법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국악에서는 12율이 처음 등장하는데, 민요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황중, 태주, 중려, 임중, 남려 등에 대한 음높이, 이를 단소나 가창 등을 통해 실제 연주해보는 감각적 지도 방법이 중요하다.

화음은 이미 학습한 음계를 바탕으로 각 음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3화음을 학습하고

그 느낌과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학교 과정부터는 초등학교 시절의 멜로디 중심에서 화음중심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2부 합창이나 3부 합창을 실제로 불러봄으로서 맑고 깊이 있는 음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 표현의 측면

표현영역은 표준교육과정에 의하면 가창과 기악, 창작으로 구분되어있다. 하지만, 이들 각 영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의 과정에서 이들을 적절히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즉, 가창중심교육으로 진행되는 수업일지라도 내용은 기악과 창작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가급적 체험적이어야 할 것이다. 가창중심수업에서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남학생들의 경우 발성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 시기의 남학생의 경우 대체로 변성기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발성의 요구는 학생들의 성대를 저하시키거나, 음악적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사가 제재곡을 선정하여 가창수업을 진행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은 보고 부르기, 혹은 듣고 부르기이다. 이는 음악적 재능을 잘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악보에 대한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창의성 개발에 어느 분야보다도 기여하는바 크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음악이 모방으로 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는 '의식의 흐름(a stream of consciousness)'으로 작용하며, 결국 창조성에 다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음악은 풍부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는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끌리게 하고 나아가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고픈 마음으로 연결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모든 예술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음악은 보이지 않는 음들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예술인 것이다.

음악과 학습과정에서 창조성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학습된 제재곡을 완전히 자기의 음악으로 체득케 한 이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와

유사한 감정과 형식을 가진 악곡을 지어보게 한다. 혹은, 음악을 감상한 후 학생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게 한다. 또는, 음악을 듣고, 이를 기화로 하여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서술하게 해본다. 이러한 훈련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몇 개의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의 의미는 가사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된다. 가사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시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음악적 요소이다. 따라서, 가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예술이며, 이를 관찰하고 음미하는 것은 음악을 잘 표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다양한 함축적 의미는 물론이고, 시의 운율과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는 문학적 해석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음악과 학습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창작’이다. 창작은 물론 창조력 개발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이긴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창작은 음악과 학습 중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즉흥적인 연주나 노래하기이다. 이미 학습된 제재곡을 바탕으로 이를 모방한다든지, 그 형식이나 주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창작에 있어 기초가 될 소재인 것이다. 특히 작곡은 일정한 형식을 제시하거나 화음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음악적 경험을 총동원해서 미숙하지만 표현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방법에 대해서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를 함께 연주 혹은 합창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음악적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감상의 측면

음악 감상 지도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18세기 말 음악역사학자인 Charles Burney가 “음악을 향수한다, 감상한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의 음악사에 사용한 이후, 감상이란 음악을 애호하는 일반 대중에게 음악

을 이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몽운동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27) 그 이후 19세기 Hans Georg Nageli, Francois Joseph Fetis 등이 “음악은 만인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저서를 발행하고 이를 여러 나라에 번역하여 애독하게 되었다. 이들의 음악 감상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에 접어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음악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책으로 인식되어 더욱 감상의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음악교육을 위한 감상은 20세기 미국에서 Frances Clark에 의해 시도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8)

서양음악의 감상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음악을 지시적 의미로서 접근할 것이냐 와 절대적 의미로서 접근할 것이냐 이다. ‘지시적 의미’의 접근은 악곡이 내포하고 있는 또는 시사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상상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이미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음악과 음악 아닌 것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있다. 여기에서 음악 아닌 것이란 이를테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사랑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 인간은 이러한 음악 외적인 대상들을 자신의 내면세계로 음악을 매개로 하여 이끌어 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상상’과 이를 통한 ‘의식의 흐름’이라는 사고의 과정이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절대적 의미란 음악자체의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미적 정조를 향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은 주로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용될 수 있다. 고전주의 음악은 그 시대적 환경이나 사상이 단순 명쾌한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 어떤 환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만끽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던 것이다. 물론 지시적 의미의 음악으로는 낭만주의 시대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은 문학적인 사고나 철학적 사상을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음악 외적 요소를 음악 속에 관련지어 생각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

연주형태에 관한 학습은 음향적 다양성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힘이 된다. 여러 가지 연주형태는 그 악기나 인성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 준

27) 이용일, “음악교육학 개설”, 현대음악출판사, 1992, p.219

28) 이용일, 상계서, p.220

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해지게 된다. 악곡의 구조나 그 시대적 배경은 물론, 감상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그 악곡구조란, 어떻게 적절한 모습으로 그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구조는 왜 이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가와 같은 의문을 풀어간다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3번, E♭ 장조, “영웅” 교향곡은 1903년 비엔나에서 작곡되었다. 베토벤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평소에 흠모해왔는데, 이는 그를 통해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베토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악곡구성(느린 도입부를 생략한 것, 강렬한 주제를 처음부터 사용한 것, 미뉴엣과 트리오를 없애고 스케르쪼를 도입한 것 등)을 과감하게 창안하게 되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역명을 주도했던 그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가 최고의 권좌에 오르자 황제에 대한 꿈이 그의 욕망을 불태웠고 이는 곧 베토벤으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하였으며, 그에게 헌정하려 했던 교향곡 표지의 “보나파르테(Bonaparte)”라는 제호를 찢어버리고 “영웅(Eroica)”이라는 제호를 달아 비엔나에서 출판하였다²⁹⁾라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한다면 훨씬 깊이 있는 감상학습이 될 것이다. ³⁰⁾

3. 음악 교육을 통한 인격성장 및 음악성의 성장

가) 음악적 성장

음악적 능력은 음악적 심성이 포괄적이고 균형있게 발달하는 상태를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교의 음악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그 근본 목표로 한다. J. Mursell은 음악성은 “듣는 것에 대한 감각과 지각 및 청각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독특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음과 흐름결의 패턴을

29)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 수문당, 1985, p.134

30) 송진범, “음악교육학”, 학문사, 2000, pp.205-216

지각하고 상상하여 생각하는 힘과 그것에 의해서 표현되는 감정 내용에 대한 감수성의 발달이 음악적 성장이며, 모든 음악 활동과 음악 학습은 음악적 성장의 촉진을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음악적 심성에 관련해서는 “무한한 매력과 변화 넘치는 음악의 세계”에 대한 개안(開眼)을 강조하고, 음악교육을 통해 “인간의 음악에 있어서의 음악의 위치와 갖가지 음악적 현상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음악성의 계발과 음악적 심성의 육성은 음악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음악교육은 인간의 음악적인 능력은 특수한 유전적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능력을 음악이라는 특수한 형태에 관련지음으로써 생성되는 능력이라는 믿음과 음악적인 심성이 인간의 보편적인 내적 경향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결국 음악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인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음악적인 심성을 깊고 넓게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적인 능력의 개발과 음악적인 심성의 육성이라는 목적의 성취여부는 학생 개개인의 음악체험의 양상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음악적인 능력과 심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나) 음악성의 발달

음악성은 음악적 체현상에 대한 식별력 및 음악적 상상력과 음악 행위의 능력, 음악적 통찰력 등을 포괄하는 총체로서의 음악적인 능력을 뜻한다. 음악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식별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이 음악 행위 능력과 음악적 통찰력은 음악 행위를 통해 길러진다. 음악적 통찰력이 깊어지지 않는 한 정확한 음악적 식별력, 풍부한 상상력과 고도의 음악 행위 능력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은 불가분의 삼각관계를 가진다.

음악의 요소에 대한 식별력은 음향을 음악다운 것으로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게 하는 힘이 되며, 음악적 상상력은 음악을 예술다운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향수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 교육 활동이라도 이러한 능력들을 기

르는 데에 그 1차적인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의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음악행위의 능력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창작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 연주와 창작, 감상은 음향을 음악적으로 반응 표현하고, 음악적 식별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행위들이다.

창작을 통한 음악 표현 역시 음악적으로 자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음악 창작은 음향을 자신의 음악적 의도에 따라 조직하는 행위로,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출하는 길이 된다. 음악적 상상력이 음악 창작의 기반이 되고, 음악적 식별력이 음악적인 상을 음향으로 표현하는 통로가 됨은 물론이다. 창작활동은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음향 상태로 구체화 하는 체험인 까닭에, 타인의 작품에 대한 심상을 구축하고 작품의 의미를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서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유용성이 운위되어 왔다.

음향 식별력과 음악적 상상력은 음악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능력이 되며, 음악적 통찰력은 음악 행위의 질을 가름하는 능력이 된다. 음악적 통찰은 음악을 체험할 때에 발생하는 음향 현상에 대한 어떤 느낌과 감정의 질에 대하여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음악적 통찰력이란 음향에 대한 민감한 청각감과 음향의 조직과 그 논리에 대한 느낌과 사고를 근거로 하여 악곡의 각 부분이, 그리고 그들간의 어떤 관련성 속의 전체로서 악곡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음악의 체험은 음악적 표현 형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지각하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일인 까닭에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은 음악 행위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음악적 통찰력은 음향 식별력 및 음악적 상상력, 음향 구조적 논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발달하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 행위를 통해 발달한다.

음악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을 음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 있다면, 음악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향적 현상을 사실 자체로만 지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직관으로 음악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음악 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귀중한 인간적

경험인 것이다.

다) 음악적 심성의 발달

음악적 능력이 인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단언하기에는 망설임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예술은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며, 전인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체험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음악성 혹은 음악적 능력이 곧 인격과 등식을 이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인격과 관련되는 것은 음악적 능력이라기보다는 음악적 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음악적인 능력이 음악적인 심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음악적인 심성이 음악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기반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음악적인 능력 수준과 음악적 심성의 깊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경우다.

음악적 심성은 음악에 대한 기호, 음악적 감정, 음악적 정서 등을 뜻한다. 음악에 대한 기호는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 혹은 음악의 종류와 관련하여 좋아하는 성향을 말하고 음악적 감정은 음악을 체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인 내적 감정 상태를, 음악적 정서는 장기간의 음악 생활을 통해 형성된 지속적인 내면 상태를 말한다. 음악을 좋아하고, 폭 넓게 음악을 좋아하되 특히 예술적인 음악을 매우 좋아하고, 민감한 음악적 식별력과 예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이면 갖게 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폭 넓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해 감정적인 성숙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내적 상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이를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 심성은 학교 안팎의 음악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음악 교사가 학생들의 음악 심성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는 학교 음악 경험의 결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은 가지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갖도록 하는 길은 교사가 음악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성공적인 지도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바람직한 음악적 심성을 형성하도

록 돕는 것을 말하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이란 학생이 모든 음악 활동에 주체로 참여하고, 음악적인 느낌과 사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결정한 자신의 의도가 음악 행위 속에 포함되는 상태를 뜻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느낌과 사고, 의도를 음악 행위의 주된 원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음악 행위와 기능은 감성과 깊게 관련된다.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심성이 상호 촉진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31)

3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p.176-186

제5장 결론

흔히 교사는 가르치는 자,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이 모두 수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극히 단편적인 일과성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할 것이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음악교사는 학습내용의 안내자로서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현대의 음악교육, 나아가 인간주의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일반적 정신활동 중에서 지식의 습득과정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악교육은 단지 노래 부르는 시간, 신기한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선생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정도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음악학습의 본질은 음악이라는 순수한 매체를 통해 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며, 이를 자신의 인격적 도야의 과정으로 승화시켜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음악교사는 이러한 순수한 학습의 과정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머셀(J. L. Mursell)은 그의 저서 “음악교육과 인간형성”에서 음악교육가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음악교육가의 임무는 인간의 인간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³²⁾ 이 말은 음악교사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칫 음악의 가치를 전도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음악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고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이와 같은 인간주의적 교육의 일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적, 심미적 속성들이 무한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학

32) Mursell, J. L.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세광음악출판사, 1985, p.13

생 자신들의 여러 가능성들을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기회와 상황들을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개성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교육보다도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악 교육이 학습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에 근거하는 교육이며 학습자의 본성 중심, 자율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풍부한 감수성과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전인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간적인 교육에 비중을 두고 병행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습득하기 가장 쉽고 수용하기에 용이한 음악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이 그 가치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장혜숙(2002). 청소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학교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제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연(2009). 피아노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련, 장휘숙(1982). 발달심리학. 서울: 전영사.
- 김 정(2003).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박봉목(1979). 'Dewey의 예술론' 교육학 연구. 서울: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 17
권 제1호.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송진범(2000).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 송길연 외(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계휴(200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 신현기 외(1995). 학습장애 아동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양종모 외(2001).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종모 외(2001). 한국 초, 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질적 접근. 서울: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 양종모 외(2001). 한국 초, 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 서울: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 이소연(2007).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아(2000). 인간형성에 미치는 음악교육의 영향. 대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육대
학원.
- 이용일(1992). 음악교육학 개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임영식, 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장병립(1982).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 호(2005).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술.
- 장진희(2002). 청소년기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
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정(2007). 중학교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
학교 교육대학원.

- 한명희(1982). 듀이의 미학이론과 교육이론. 서울: 삼일당.
- Grout, D. J.(1985). 서양음악사. 서울: 수문당.
- Hoffer, Charles R.(1992).음악교육론(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anger, Susanne K.(1953). Feeling and Form. New York: Charles Scribner's.
- Mursell, J. L.(1985).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Schopenhauer, A.(1896). The World as Will and Idea, 4th edition, vol.1, trans. R.B.Haldane and Kemp, J.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